

“우려가 현실로”... 선거 ‘태풍의 눈’

전남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불법 정당 가입과 당비 대납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광주·전남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중앙당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심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다.

또한 정당법과 공무원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된 시·군 공무원들의 무더기 정당 가입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었음을 반증한다. 특히 가입 정당이 특정정당에 몰려 조직적인 동원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비 대납의 경우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사례가 확인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대납 사례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정당 가입=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전남도 선관위의 전남도내 시·군 공무원 전수조사에서는 57명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57명은 ▲순천 22명 ▲화순 9명 ▲여수 8명 ▲보성 4명 ▲곡성·강진·영암·무안·신안 각 2명 ▲나주·장흥·진도·영광 각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기능·고용직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에서는 간부급인 6급 이상도 10명(5급 1명, 6급 9명)이나 됐다. 또 7급은 16명, 8급 2명, 9급 4명 등이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민주당에 가입한 목포시 공무원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불법 정당 가입으로 고발된 공무원은 모두 8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남도당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불

■ 전남 선관위 공무원 불법 정당가입·당비대납 확인

가입 정당 민주당 몰려 조직적 동원 의혹 당비 대납 대거 적발 당원 불법모집 입증

법 가입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당법(제22조)과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 의해 금지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은 그동안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의 주류를 이뤘던 출마예정자 홍보물 배부나 음식물·향유 제공 등과는 사뭇 다른 양태다.

◇당비 대납=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세 확장이나 과시를 위해 상당수 정당들이 후보자들을 앞세워 당원들을 불법적으로 모집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가입자 가운데 708명이 본인 스스로 당비를 낸 사실이 없고 입당 사실조차 모르는 사실을 밝혀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들의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돼 있는 49명에 대해 당비대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천인들이 강제입당 및 당비대납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력과 시간적 제한으로 지난해 12월 입당하면서 당비를 현금으로 미리낸 2만

147명 가운데 12.5%인 2천514명만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해 당비 대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비 대납 사례의 경우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조직적 동원의 의혹이 짙어 그 배후를 캐내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선관위는 당비 대납자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측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처벌 어떻게 되나=공무원이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정당법(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당비대납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8조)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직선거법(제257조)상 기부행위제한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앙당과는 무관하며 조사대상에 민주당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보도된 8만여 후원당원 명단은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어 사실상 폐기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당비대납 조사결과 (단위:명)

지역	총조사대상자		조사인원수			관련자수(추정인)
	총조사대상자	본인납부	당비대납 등	계	비율	
목포시	1,889	220	17	237	2	
여수시	5,975	140	151	291	1	
순천시	2,658	37	51	88	6	
나주시	656	15	16	31	1	
광양시	119	15	45	60	5	
담양군	37	12	12	24	1	
장성군	474	63	0	63	0	
곡성군	13	3	10	13	1	
구례군	365	133	0	133	0	
고흥군	1,921	107	85	192	8	
보성군	1	1	0	1	0	
화순군	2,144	83	17	100	6	
장흥군	416	57	97	154	2	
강진군	312	64	76	140	5	
완도군	317	16	28	44	2	
해남군	41	26	0	26	0	
진도군	82	30	23	53	3	
영암군	1,058	326	24	350	1	
무안군	1,125	393	14	407	2	
영광군	12	12	0	12	0	
함평군	2	1	0	1	0	
신안군	520	52	42	94	6	
합계	20,147	1,806	708	2,514	52	

※추천인 57명 중 수사기록 대상자는 49명인(시·군 중복지 3명) ※총 조사대상자는 2005. 12월 입당지 음 현금 납부자 수

■ 전남지역 공무원 입당 조사 결과 (단위:명)

시·군명	입당자	직급별					기능직·고용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여수시	8			5			3
순천시	22	1	3	4	1		13
나주시	1			1			
곡성군	2					1	1
보성군	4	2				2	
화순군	9	1	4	1		3	
장흥군	1					1	
강진군	2		1			1	
진도군	1		1				
영암군	2					1	1
무안군	2		1				1
영광군	1						1
신안군	2			2			
합계	57	1	9	16	2	4	25

“광주시장 후보 경선 100% 시민여론조사 실시”

與 지역의원 중앙당에 의사 전달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홍재형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을 만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100% 시민여론조사로 실시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김재균 예비 후보가 100% 시민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광주시장 후보는 전락공천을 통해서라도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재형 위원장은 광주지역 의원들이 합의한다면 광주시당 후보 경선은 100% 시민여론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원이 참여하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기정, 염동연 의원은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준영씨 전남지사 출마 공식 선언



박준영 전남지사가 13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오후 전남도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라도는 강력한 에너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실제 삶의 모습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그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지사는 “2004년 총선 패배 이후 버림받은 끝에 부활한 민주당이 이제 두 번째 시험대 앞에 섰다”며 “그간 속에서도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섰던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뿌리 깊은 나무의 강인함을 보여 줄 때”라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3포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전남의 미래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차(鏡車)와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

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관광수입과 파생효과를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산 수입쌀인 칼로스 판매 문제와 관련 “농업을 산업으로 보고 경

쟁시켜서는 안된다”며 “농업과 농민, 농촌 등 ‘3농’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 난항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당의 여론조사 경선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창근 예비후보는 ‘공직특위’가 후보자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적인 여론조사방식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한 제3자의 중재 아래 자신과 박준영 예비후보간 직접 담판하여 경선방법을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앙당 관계자는 “오는 17일 공특위를 열어 단독으로 신청한 박준영 현 지사를 공천자로 확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5·31 지방선거 현장

이상동씨 “공천못받으면 무소속 출마”

○민주당 이상동 광주 북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여론조사 압도적 1위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공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며 공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성 후보 가산점 25%를 합해도 고작 10%대를 벗어나지 못한 후보가 공천될 배경을 설명하라”며 “공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여의치 않을 경우 동반 입당한 5천여명의 지지자와 함께 탈당, 무소속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윤남실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윤남실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역의원 서구2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서구 치평동 1184 보광빌딩 2층에 선거사무소(372-4531)를 마련하고 15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갖는다.

같은 당 이봉훈 광주 북구 1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도 북구 문충2동 일신아파트 정문 장터할인마트 2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14일 오후 7시 개소식을 갖는다.

한나라 전남도당 운영위 개최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13일 당사에서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공직후보 추천과 지역대표 전국위원 선출 건 등을 심의, 통과시켰다.

도당은 이어 주요당직자회의를 개최, 고문·신임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직자 부부 선거출마위해 귀향

○고위공직자 부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귀향해 화제다.

유두석(56·전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이사관 명예퇴직)씨와 부인 이창(50·경기도 공대중학교 교감 명예퇴직)씨는 유씨의 장성군수 무소속 출마를 위해 고향인 장성으로 최근 귀향했다. 유 후보는 “이제는 고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할 때”라고, 부인 이씨는 “교직의 경험을 살려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노인복지·여성문제 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각각 말했다.

이기병후보, 재경선 시도 중단 촉구

○공특위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나주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확정 발표한 이기병 후보는 13일 성명을 내고 “중앙당 재심특위의 재경선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즉시 여론조사 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중앙당에서 최igin 의원의 의견과 원칙을 무시한 채 공천에서 탈락한 자신이 계약인 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의 최igin 견제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보문헌출판사
111-1111-1111

홍보문헌출판사
111-1111-1111

영주공회전시장
111-1111-1111

영주공회전시장
111-1111-1111

중흥시대부동산
111-1111-1111

상무지구
숙박시설

- 객실 68개
- 최신 물리모형
- 합계 17억 2천만
- 공사비 30억
- 보증금 10억 포함
- 가격 상임후 결정

신진부동산건설팀
111-1111-1111

부동산 교환

주 택
상 기
문 물
기 지

부동산 교환

다 양한 물 권 다 양보유

공 장, 공 장부 지
물 류창 고, 묘 지

중합병원 직입부지 매매

111-1111-1111

장성동화공민중계시
111-1111-1111

공장, 공장부지
물류창고, 묘지

다양한 물권 다양보유
토지 투자 상담 전문

부대찌개

체인점 모집

방신이 그린
인쇄